

주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이다. 이런 주간을 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, 매순간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. 특히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 성찬식을 하면서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다. 매일, 매순간, 평생 놓치지 말아야 할 언약을 담아주신 것이다. 적어도 세가지 언약을 담아주셨다. 그 세가지의 언약을 붙잡고, 가장 의미있고, 축복된 성찬식을 해야겠다.

1. **그 분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이 떡은 “너희를 향한 나의 몸”이라고 하셨다(24절)**  
그리스도께서 육신의 고난을 당하신 의미이다.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해방의 축복이다.
  - 1) **그리스도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?**  
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형벌은 가장 악하고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은 자들이 당하는 형벌이었다. 무엇보다도 직접 육신의 몸으로 당한 고통이다. 뭘 이루고 알려 주려고 했던 것일까?
  - 2) **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 당해야 하는 모든 저주를 그렇게 끝냈다는 것이다.**  
우리가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은 아담의 저주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(롬5:12). 그것만 아니다. 타고난 가문의 저주도 있다(출20:4-5). 우리 자신들도 얼마나 많은 죄와 저주를 쌓고 살았는가(롬3:10)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부끄럽고, 놀리고, 시달리며 살 수 밖에 없다(죄의식, 죄책감). 그 정도 아니다. 영원히 고통당하는 저주도 기다리고 있다(히9:27). 거기서 빠져 나오도록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다. 여기서 해방 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늘 사단의 통로가 되어 영적문제로 발전한다(행10:38).
  - 3) **실패가 반복되는 사람들, 우울증, 중독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 축복을 붙잡는 순간 끝난다.**  
주님의 고난이 내가 받을 영혼의 저주, 마음의 실패와 고통, 육신의 질병과 저주까지 다 끝낸 것이다(사53:5) “나는 해방 받았다”, 내가 듣고 마귀가 듣도록 선포하라. 내가 해방 받았다는 믿음이 회복될 때 사단도 떠난다. 실패하는 자들에게 이 언약 확인시켜주고,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주고, 도와주라. 하나님이 끝낼 것이다.
2. **그리스도께서 쏟으신 피의 의미이다. 세상과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 언약의 표이다(25절)**  
성경에 피는 곧 생명이라고 했다. 우리는 해방된 정도가 아니다.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다.
  - 1) **우리가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피의 언약을 잡고,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다.**  
예수의 생명, 영원한 생명이다.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이미 영생을 가진 것이다(요5:24).  
예수의 생명, 영광의 생명이다. 사60:2에 “그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라”고 했다.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.
  - 2) **이제는 이 생명 가진 자의 자존심(Self Identity), 자부심(Self Worth), 자긍심(Self Esteem)을 가지고 살라.**  
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 받은 순간 내 안의 DNA가 다르다. 그래서 “거룩한 씨”(사6:13)라고 했다.  
내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. 세상이 보는,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니고, 하나님이 보는 나를 보라(사43:4)
  - 3) **우리의 과거는 간증이 되고, 발판이 될 것이다.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준비하셨고, 인도해 가신다.**  
모든 염려와 걱정을 버리고, 믿음의 감사를 드리라(빌4:6-7).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신다고 했다(엡3:20)  
사람들 때문에 갈등하고, 문제에 속지 말고,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(렘33:1-3)  
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(롬8:28), 증거가 되게 하실 것을 붙잡으라(행1:8)
3. **이제 마지막 누릴 축복은 이 축복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전달하라는 것이다(26절)**
  - 1) **우리 인생의 결론이 이것이다.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자로, 제자로 살다 가는 것이다(마28:19)**  
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죽었고(고전15:3), 약속대로 부활하셨고(고전15:4), 약속대로 모든 것을 끝냈다(요19:30)
    - ① **것은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것이다(행1:11). 이것이 언약의 결론이고, 세상의 결론이고, 하나님의 결론이다**  
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했다(계21:5). 이것이 또 성경의 결론이다. 이 결론을 잡고 가야 한다.
    - ② **이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는가? 마24장, 딤후3장, 계시록을 통해 많은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.**  
지진, 재난, 갈등, 미움, 전쟁 계속 되고, 끝없이 타락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했다.  
분명히 때가 가까운 것은 맞다. 그러나 진짜 끝은 언제인가?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뒤라고 했다(마24:14)
  - 2) **우리가 모든 나라,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(막16:15-20)**
    - ① **우리를 그의 찢기신 몸과 피로 구원하신 이유이고, 때로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허락하신 이유이기도 하다.**  
내 아픔과 눈물로 세상을 보라는 것이다. 내 눈물과 고통으로 이 땅의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과 고통도 생각해보라는 것이다. 온 세상에 깔려 있는데, 못 보고, 안 보는 것이다.
    - ② **우리를 축복의 자리로, 성공의 자리로, 썩밋의 자리로 보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.**  
거기도 이 그리스도께서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. 길으로는 성공한 자의 삶을 사는데, 우울증, 정신 문제, 자살 충동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팍 찼다. 언약 속에 있는 내가 맞다면 결국 축복의 자리, 성공의 자리, 썩밋의 자리로 간다. 문제는 거기서 전도와 선교를 놓치고 살면 결국 하나님과는 관계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.
  - 3) **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까?**  
땅끝까지 가야 하겠지만, 일단 내 주변에 와 있는 사람부터 살리고, 되어서는 전도의 축복을 체험해보라.
    - ① **평상시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 분을 누리고 영적인 힘을 얻으며 살라(함께).**  
만드시 내 삶에,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고, 그 빛으로 사람들이 온다고 했다(사60:1-5).  
특히 내 현장에 영혼 구원을 가로막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계속 영적 싸움의 기도를 누리라(마12:28)
    - ② **내가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기도할 한 사람만 만나도 역사 일어난다. 마18:18-20의 축복이다(임마누엘)**
    - ③ **평생 하나님의 결론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함께 팀이 될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나를 준비하라(원네스)**  
그런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고 배우자가 되면 시대 살리는 응답, 100년의 응답, 천년의 응답이 오는 것이다

**결론**-초대교회는 매일 성찬식을 하고, 매주일 성찬식을 했다는 사람들도 있다. 매일, 매주일 그 예식은 못해도 그 언약 만큼은 나의 24시, 매일, 평생으로 붙잡고 가라. 언약의 사람,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,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한다.